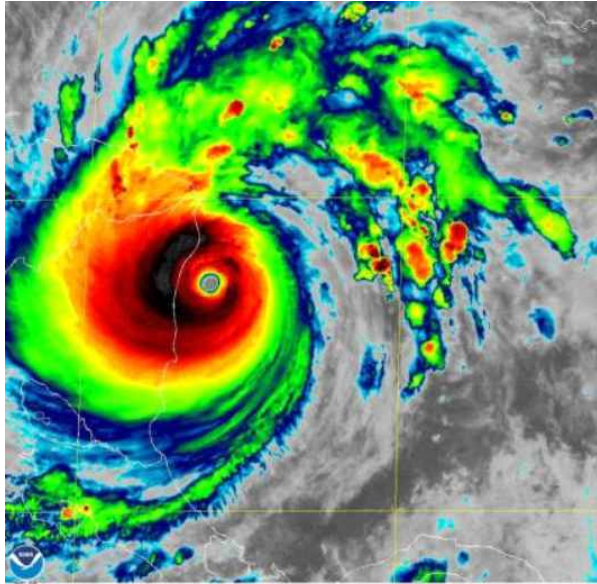


연속적인 열대저기압 강타로 인해 지역 황폐화

(2020.11.17자 WMO 기사)



번역 : APCC 전문위원 김세원

열대저기압이 최근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파괴가 일어났고 중앙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열대저기압이 생명과 재산, 사회경제적 복지에 가하는 위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WMO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지구적 차원의 조정과 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새삼 상기시켜준다.

허리케인 이오타(Iota)는 11월 17일 니카라과에 Saffir Simpson 규모의 강력한 카테고리 4로 상륙.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대서양 허리케인이며,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카테고리 4급 에타(Eta)가 강습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았고 여전히 휘청거리는 그 지역을 또 다시 강타.

이오타는 이번 시즌에 발생한 30번째 열대성 폭풍으로 이 숫자는 역대 최대. 기록상 최초로 허리케인 시즌이 보통 끝나는 11월에 두 개의 대형 허리케인 발생. 참고로 금년 대서양에 대형 허리케인 4건 발생.

10월 이후 발생한 카테고리 3 플러스 급 허리케인 : 델타(Delta), 입실론(Epsilon), 에타(Eta), 이오타(Iota) - 허리케인 이름 정규 목록이 모두 소진되어, 이후 그리스 알파벳에서 가져옴.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사무소(UNOCHA)는 이 처럼 허리케인이 빠르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유래 없던 일로 이로 인해 재앙적 결과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 에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대해 국제적 원조 호소 시작.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


대서양 허리케인 활동 (~ 2020.11.17)

	2020년 발생	1981-2010년 발생 평균	1981-2010년 발생 평균 대비 2020년 발생 비율	1966년 이후(위성시대) 연도별 발생 순위 중 2020년 순위
명명된 폭풍	30개	11.6개	259%	1위
명명된 폭풍 일수	117일	56.3일	2028%	3위
허리케인	13개	6.2개	210%	2위
허리케인 일수	34일	23.3일	146%	13위
대형 허리케인	6개	2.6개	231%	공동 2위
대형 허리케인 일수	8.5일	6.1일	139%	15위


(출처: Philip Klotzbach,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이오타는 재앙급 허리케인으로 니카라과에 상륙. 이때 최대 풍속 250km/h. 중미에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해일, 바람, 돌발홍수, 산사태를 일으켰고, 곳에 따라 최고 750mm의 비가 내림.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이미 허리케인 에타의 영향으로 홍수와 산사태 겪고 있는데 뒤를 이어 동일한 지역에 **이오타까지** 추가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



Key Messages for Hurricane Iota
Advisory 16: 4:00 AM EST Tue Nov 17, 2020



1. Iota is still a significant hurricane. Damaging winds and a life-threatening storm surge are expected along portions of the coast of northeastern Nicaragua during the next several hours, where a hurricane warning is in effect.
2. Life-threatening flash flooding and river flooding is expected through Thursday across portions of Central America due to heavy rainfall from Iota. Flooding and mudslides across portions of Honduras, Nicaragua and Guatemala could be exacerbated by Hurricane Eta's recent effects there, resulting in significant to potentially catastrophic impacts.



For more information go to hurricanes.gov

예측 경로를 보면 **이오타**는 11월 17일에 니카라과 북부를 가로 질러 내륙 더 안쪽으로 움직인 다음 온두라스 남부를 가로 질러 이동할 것임. 이오타는 상륙시 카테고리 2로 약화되었으며, 중미를 통과하는 11월 18일 후반 경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

이오타로 인해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

- ▷ 온두라스, 니카라과 북부, 과테말라 남동부 및 중부, 벨리즈 남부 : 250-500mm
- ▷ 엘살바도르 및 파나마 : 100-200mm (많은 곳 300mm)

북태평양 서부

이번 시즌 북태평양 서부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명명된 폭풍은 22개.

그 중 10개는 태풍 급인데, 강도 면에서 허리케인 등급용 카테고리로 변환 비교하면

- 카테고리 3급에 해당하는 태풍이 3개,
- 카테고리 4급은 3개,
- 카테고리 5급(고니) 1개

고니(Goni)는 2020년 상륙 태풍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11월1일 필리핀에 상륙. 고니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상륙 태풍이었던 **2013년의 하이옌(Haiyan)**과 거의 동급.

필리핀에는 10월 25일부터 시작하는 3주에 걸쳐 유래없는 수준의 열대폭풍 5개가 상륙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태풍 **몰라브**(현지명 : Quinta)이고, 이번 주에는 심각 수준 열대성폭풍 **STS 밤코(Vamco)**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밤코는 올해 필리핀을 강타한 21번째 열대저기압이었다.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에만 8개의 열대성 폭풍이 베트남을 강타, 폭우, 홍수, 산사태를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입힘.

OCHA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열대 저기압이 시리즈로 이 지역을 강타해 총 3,25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는 2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한다.

홍수, 폭풍 해일, 고속풍, 산사태, 화산 이류(泥流, mudflow)로 인해 주택 파괴 또는 손상되었고, 보건 시설, 물 및 위생 시스템 붕괴, 학교 파괴, 농작물, 가축, 어선 및 기타 생계 수단이 휩쓸려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홍수 피해 인원(명)	770만	80만	2,400만
피해 받은 도(道) (개)	9	19	10
원조가 필요한 인원(명)	1.5백만	388천	845천
원조 지원 대상 인원(명)	17만7천명	23만7천명	26만 명
요청 기금 (미화 달러)	40백만	9.43백만	45.5백만